

스물두번째 이야기

A Gospel Writer!

삶이 글이 되고, 글이 생명이 되어



‘BEE오는 수요일’ 팀이 이번에 만나본 사람은 BEE식구가 아닌 외부인이다. BEE식구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큼 의미 있는 인물일까 궁금했는데 직접 만나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전혀 낯선 분이 아니면서도 진작 만났어야 할 ‘복음’ 안에 한 동역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탁월한 동역자임을..... 위축되어가는 한국 기독교계에서 ‘문화선교’라는 큰 독을 쌓아가고 있는 김수경 작가를 만나보자.

Q. 지금 대학로 ‘작은극장 광야’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오, 마이 갓스!’를 소개해 주시면? (인터뷰 당일 비수팀은 오후 2시 공연 관람 후 김수경 작가를 만났다. 12월 1일까지 공연될 예정이다.)

‘오, 마이 갓스!’는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문화행동 아트리’의 김관영 목사님을 통해 뮤지컬 작가로 데뷔하게 된 첫 작품입니다. 지금 공연되고 있는 작품은 2000년도에 개작하였던 ‘갓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첫 공연에서 ‘오, 마이 갓스!’는 요즘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신앙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지만 대중적으로 입소문을 타며 공연마다 만석을 이룰 정도로 성황이었죠. 그래서 다음 해 2000년도에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개작하여 ‘갓스’라는 타이틀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또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그 다음 해 2001년도에는 다시 ‘더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준상씨도 출연했었고, 이 작품으로 2002년도 제8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5개 부문의 상(남우주연상, 극본상 포함)을 받았습니다.



‘오, 마이 갓스!’는 인간 내면에 있는 이상들(중독)을 다루고 있고, 2000년도라는 특정의 시간을 배경으로 ‘게임’의 틀을 빌린 옴니버스 스타일의 작품입니다. 당시 30대 초반이던 저의 재기 발랄한 감각이 담겨진 작품이었는데, ‘갓스’, ‘더 플레이’의 개작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의도했던 메시지가 많이 희박해지고, 선명했던 부분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공연을 하게 되면서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이상개론’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이상들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이상 중 하나인 ‘자아’에 대해 ‘자기애’에서부터 ‘자기인민’까지를 다루고, 세 번째 장(개작자에 의해 새롭게 추가된 장)에서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이상들을, 중독현상들을 해

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작 과정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원년 제작진 분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지난 공백기 16년 간의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아내고자 애쓰신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있는 작품으로 발전되었고 앞으로 매년 공연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문제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더욱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복음’ 앞으로 관객들을 이끌고자 하는 문화선교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Q. 현대인들에게 중독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일반 치료 방법들보다도 오히려 ‘복음’만이 유일한 치유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중독 현상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모두 다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분들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복음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겨 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때 우울증을, 그 당시에는 우울증인지도 모른 채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가고 삶의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는 증세를 몇 달 동안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강림주일 기도회 모임에 열흘 간 참여하고 나서 얼마 후, 머리 속에서 물리적으로도 짓누르는 듯한 짙은 먹구름이 한 순간 깨끗이 걷혀가는 생생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Q.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들이 이번 작품에 반영되었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작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우울증을 겪은 것은 원래의 작품이 나오고 10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저의 체험과도 연관되어 뮤지컬을 쓴다면 우울증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원죄’를 주제로 한 작품을 쓸 생각입니다. ‘꿈’과 연관시켜서 심리학적인 접근이 가미된 드라마를 쓰고 싶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죄의식과 관련해서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죄를 감추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불안감, 긴장감, 죄책감 등이 그 내용을 이룰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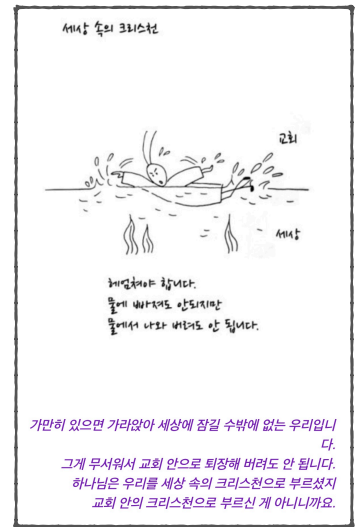
Q.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닙니다. 열 살 때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혼자 있었고, 매일 악몽으로 가위에 눌러 공포심으로 가득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차마 볼 수 없으시고 안쓰러우셨던지 신앙심이 없으심에도 저를 교회 예배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절대로 갈 수 없었던 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예배 가운데 처음으로 평안을 느꼈고, 새로 나온 사람들 소개할 때도 자원해서 앞으로 걸어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위놀리는 악몽도 사라졌죠. 그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중학교 시절 잠깐 멈췄지만, 중3 수련회 이후로는 왓싸(아웃사이더)가 아닌 완전한 인싸(인사이더)가 되었습니다.^^ 대학 때는 제자훈련에 열심히었고, 1994년도 선교한국대회에서는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문화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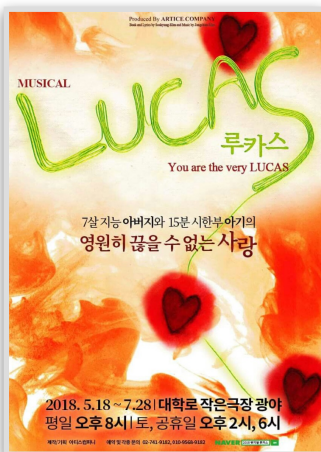
Q. 출판 작가로서의 데뷔도 이야기해주시면?

대학시절 교회 청년부 주보에 1년 동안 실었던 한 컷 신앙카툰을 모아 졸업 후에 우연치 않게 출판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최초의 기독 카툰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이후 뮤지컬 작품을 하기 전까지 신앙우화 단행본 및 신앙만평 시리즈의 작품들에 전념했습니다. (김 작가는 대부분의 카툰작품들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유하고 있다. '기독과 개독 사이')



Q. 아끼는 작품이 있다면?

공연작품으로는 '루카스'(2006)가 가장 소중한 작품입니다. 데뷔작이었던 '오, 마이 갓스!'는 옴니버스 작품이어서인지 오히려 쉽고 재미있게 작업했었는데, 공연판에서 점점 배워갈수록 인물 개개인에 대한 밑바닥 감정까지도 터치하는 작품을 써야한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을 소재로 한 '루카스'를 쓸 때는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어렵사리 작품을 쓰게 되었죠. 마치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연 연습 중에 단역을 맡은 배우 한 분이 자신이 맡은 인물의 대사를 언급하면서 "작가님, 이 사람은 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라고 질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 작품 중 모든 대사와 사건 진행은 주인공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주변 인물은 단지 대사 전달과 상황전달 자료만 이용했을 뿐 그 마음이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죠. 그 배우의 질문은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등장인물 모두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비록 극중에 주인공은 한정되어 있지만 작가는 모든 인물의 삶에 책임지면서, 극 전개에 드러나게 개입하지 않고 극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루카스'를 쓰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후에는 '오, 마이 갓스!'같은 통통 튀는 작품보다는 '루카스'처럼 인물의 감정을 깊이 건드리는 작품을 쓰는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루카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에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지적 장애인 부부에게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장애인 부부의 마음에 빚대어 나타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도 15분 밖에 살 수 없다는 아이, 루카스를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산하고 기적적으로 17일 동안이나 공동체에서 함께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작품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17일이나 살아낸 루카스와 장애인 부모의 순수하고 극진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초연되었고 지난 봄에는 12년 만에 역시 '작은극장 광야'에서 다시 공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공연될 예정입니다.

Q. 현재 쓰고 있는 작품이 있다면?

예전부터 '365일 성경인물 묵상집'을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엄두가 나지 않았었죠. 올 초에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 새번역성경을 한 번 통독하려는 마음이었는데 여호수아 전까지밖에 읽지 못했어. 하지만 성경을 너무 재미있게 입체적으로 읽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부

족하더라도 각 등장인물의 시점으로 바라본 모놀로그는 한 명 한 명씩이라도 쓸 수 있겠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등장하는 성경 인물마다 1인칭 시점으로 짧게 독백하는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매일매일의 묵상거리를 제공하는 묵상집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재까지 60명 인물의 독백을 마쳤는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1년 365일 분량의 묵상집을 이제는 모두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공부(어 성경이 읽어지네) 인도도 책 집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속히 서가에 꽃히기를 기도한다^^ 꼭 싸인해주세요~~)

문화선교사로서의 삶을 다양한 작품과 활동으로 우직하게 걸어가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통해 아직 이 땅을 놓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할 진정한 '문화선교사'가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남아있는지.....하지만 그 역할을 충성되이 맡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새길 수 있었던 오늘 하루였다. 감사하다. (인터뷰 : 김옥숙, 이창선, 유재화, 글 : 김종영)



[작가 김수경]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작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처음 갔다.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제자훈련 및 각종 성경공부 시작하였다. 졸업 후 첫 카툰집 '하나님은 사랑에 눈멀었다(1993,두란노)'를 내고 출판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20대 후반부터 문화선교사로 헌신하였다. 30세에 첫 뮤지컬 '오 마이 갓스(1999)'를 시작으로 뮤지컬 작가로 입문하여 지금까지 각 장르의 작가로서, 문화선교사로, 또한 교회(군포 사랑빛 교회, 집사)에서는 평신도 교육사(제자훈련 총괄), '어 성경이 읽어지네'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반칙과의 전쟁', '미로 탈출', '참으로 소중한 나'(규장),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톡톡 튀는 교회 행사', '예수를 찾아라?',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광고판이다', '나 크리스천 맞아?'(두란노) 그 외 다수가 있으며 극작품으로는 '오, 마이 갓스!', '더 플레이', '루카스', '비하인드 유' 외 다수가 있다. 그리고 '더 플레이'로 제8회 뮤지컬대상 극본상을 수상(2002)하였다. 차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사명으로 크리스천 한글학습지 'askmi'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작가 네이버 블로그 '기독과 개독 사이'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permalink=permalink&blogId=seeker8>

BEE의 보석 찾기

6. 안지민 권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결혼을 위해(?) 형제(지금의 남편)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다. 교회 등록 후 3년이 지나서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할렐루야!!! 3년 후 온누리 교회로 옮기고 나서 남편의 권유로 BEE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BEE는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갈급한 영혼을 흔들며 깨워주는 마중물이 되어 이후의 모든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BEE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섬김이라고는 모르던 모습에서 공동체와 교회에 하나 둘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 지금 교회에서는 OBC와 새가족 팀장으로, BEE에서는 해외사역본부에서 섬기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현재는 무역업체들의 수출입 통관을 위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솔루션을 개발 관리하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CEO이다.

가족은 공동체 총무를 섬기고 있는 멋진 남편과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이 있고 교회와 가까운(?) 옥수동에 살고 있다.

7. BEE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는 누구일까요?**

동남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요즘은 중국을 더 알고 싶어 중국어에 흠뻑 빠져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숫자와 친숙한 일을 하고 계시며 K-POP 10위에 오를 만큼의 재능을 가진 어여쁜 딸을 둔 아빠이기도 하지요! 그분은~~ 바로~~ !!!!!!!?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 매주 토요일 이른 아침! 서빙고에서, 양재에서, 그리고 부천에서(매월 넷째 주 토요일) BEE식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 '그리스도인 공동체(BEE KOREA의 구성원), 복음에 충실한 공동체(사명을 위한 덕목), 사역의 확대와 확장(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서로를 위한 격려와 다짐)'을 위해!
- 한 여름 푸르름에 지쳐 단풍 물드는 가을, 10월 20일 토요일! 수원으로 가는 BEE소풍이 기대감으로 더 기다려집니다!
- 10월 27일 토요일 아침! 온비아 식구들이 청주 성지(탑동 양관)로 수련회를 갑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처음 BEE를 접하는 학생들이 모두 참석하여 이 땅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